



현장 포커스

업계동향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담당: (주)카길애그리퓨리나 김남주 부장 82-31-710-6009, nkim1@cargill.com

스트래티지샐러드 조아름 부장 82-2-544-0989, 010-3682-5475 archo@strategysalad.com

스트래티지샐러드 이신향 차장 82-2-544-0791, 010-5505-0608 shlee2@strategysalad.com

❖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 2016 장학금 전달식 개최

- 1999년 이래 17년간 축산관련 분야 인재 561명 선발해 장학금 11억 6천만 원 수여
- 농업분야 최초의 문화재단 설립·운영 통해 국내 축산업 발전에 공헌

(2016.02.23.) 재단법인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사장 이보균,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이사)은 23일, 경기도 성남시 카길애그리퓨리나 본사에서 ‘2016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장학생 49명에게 총 1억 1천만 원을 수여했다.

동물영양사업 선도기업인 카길애그리퓨리나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은 국내외 축산관련 분야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생부터 대학원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장래 축산관련 분야에 종사할 인재를 선발해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16년 장학생은 고등학생 27명, 대학생 18명, 대학원생 4명으로 총 49명의 인재들이 선정됐다.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은 지난 1999년부터 올해까지 561명의 장학생을 선정하여 총 11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 이보균 이사장은 “17년간 지속되어 온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 장학사업을 통해 국내 축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축산의 주역인 전문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한국 축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를 위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국내 농업분야 최초의 문화재단인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은 지난 1997년 설립이래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기술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축산 분야의 신기술과 지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연구기술대상을 선별해 시상한다. 또한, 축산 관련 지도자, 교수로 구성된 카길에그리퓨리나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신기술과 연구실적을 공유함으로써 축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한편, 카길에그리퓨리나는 식품, 농업, 재무, 산업 제품 및 서비스를 전세계에 제공하는 카길의 자회사 겸 한국 법인으로, 동물 영양기술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동물 영양사업 선도기업이다.

[카길]

카길은 전세계적으로 식품, 농업, 재무관리, 산업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판매하고 있습니다. 1865년 설립되어 150년의 경험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농민, 고객, 정부 및 지역 사회가 함께 풍요로운 성장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세계 67개국에서 15만 2천여 명의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우리가 살고 일하는 사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카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길에그리퓨리나]

카길에그리퓨리나는 카길의 자회사 겸 한국 법인입니다. 1967년에 한국에 진출하여 최고 수준의 동물 영양 제품 및 서비스를 국내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카길에그리퓨리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카길에그리퓨리나 문화재단 '2016 장학금 전달식' 개최

카길에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사장 이보균, (주)카길에그리퓨리나 대표이사)은 23일, 경기도 성남시 카길에그리퓨리나 본사에서 '2016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보균 이사장(맨 앞줄 가운데)과 올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49명의 학생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통을 이어가는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축산학과는 1951년 개교 이래 축산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과 많은 우수인력들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충북대학교 축산학과는 개교 이래 “축산학과”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는데, 학과의 명칭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지만, 전통적인 축산교육을 지향하는 본교 축산학과의 교육목적에 부합하기에 현재까지 학과의 명칭을 축산학과로 고수 하고 있다.

현재 충북대학교 축산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는 4분의 명예교수와 7명의 전임교수가 있다. 퇴직하신 명예교수님으로는 김종욱 교수, 김내수 교수, 정정수 교수와 최근 퇴임하신 송만장 교수님이 계시며, 전임교수로는 가금 및 특수동물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구 교수, 육제품 가공학을 담당하고 있는 최양일 교수, 가축 번식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남형 교수, 가축분자생물학 및 유전체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관석 교수, 동물발생공학을 담당하고 있는 최향순 교수, 단위가축영양 및 양돈학을 담당하고 있는 조진호 교수 및 반추동물영양과 우학 및 사료학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호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대학교 축산학과에는 가금학 실험실, 축산물가공 실험실, 동물번식학 실험실 및 동물발생공학 실험실, 동물유전체분석 실험실, 단위동물영양학 실험실, 반추영양생리 실험실이 있다.

가금학 실험실은 조성구 교수가 지도하고 있으며, 가금영양 및 생산관련 연구수행을 하고 있다. 특히 육계와 산란계, 최근에는 오리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충실한 병아리를 육성하기 위하여 육계와 산란계의 육성과정시 조명과 환기조건에 관한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축산물가공 실험실은 최양일 교수가 지도하고 있으며, 근육식품과 낙농식품의 기호성,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과 이를 원료로 다양한 기능성 축산물의 품질 및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축산업 및 육가공 발전에 힘쓰고 있다.

동물번식학 실험실은 김남형 교수가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김남형 교수는 차세대 바이오그린 사업의 “동물바이오신약장기개발사업단”의 단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국내 동물바이오신약장기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종간 장기이식 가능한 대체장기 생산과 더불어 형질전환동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첨단 BT 시대의 생명공학 분야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 나갈 첨단연구 및 인력배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물유전체분석 실험실은 김관석 교수가 지도하고 있으며, 우수한 종축의 효율적인 선발과 개량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적으로는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는 데 필요한 유전정보를 발굴 및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동물발생공학 실험실은 최향순 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가축 및 실험동물을 이용한 번식생리 연구, 형질

전환 동물 생산을 위한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수정란을 이용한 각종 기전의 구멍을 통한 수정란 이식 효율 향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명공학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도출하고 있다.

단위동물영양학 실험실은 조진호 교수가 지도하고 있는데, 양돈 및 양계관련 각종 영양관련 대사실험 및 사양실험을 수행하고, 사료첨가제의 효능에 대하여 증명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ICT를 접목한 양돈생산기술 개발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반추동물영양생리 실험실은 최성호 교수가 지도하고 있는데, 주로 반추동물의 지방대사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사료의 지방산, 쇠고기 및 젖에서의 지방산 조성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지방대사 관련 소화관 및 조직과 세포단위까지의 지방대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육종가 및 유전형질에 따른 거세한우의 정밀사양기술 개발, Natural Beef 생산기술 개발 및 한우농가 및 양축농가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충북대학교 축산학과는 학부생을 위한 “BT융합 농생명 6차산업화 인재양성 사업단(CK-1사업)”, 대학원생을 위한 “생물건강소재화 사업단(BK21플러스사업)”, 산업체와 연계하고 있는 Linc 사업 등 여러 사업분야에 걸쳐 학생들의 현장교육, 대학원생의 연구지원 및 지역기업과의 산학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충북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행정관련 및 교육관련 분야로 진출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축산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다음은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의 역사를 기술하고자 한다. 충북대학교의 축산학과 시작과 현재까지의 발전 역사를 축약하였다.



충북대학교의 상징 (황소상)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역사 (忠北大學校 畜産學科 略史)

해방 직후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 농민이었고, 이차 삼차 산업을 위한 기술과 자본도 축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원도 부족하여 농업만이 국가를 지탱하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산업이었다. 그 중 충북은 내륙에 위치하면서 농업이 타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던 지역이어서 농학 이론의 깊이 있는 연구와 그 응용 방법의 탐구를 맡아 줄 농과대학의 설립이 절실하였다. 당시의 농과대학이 설립되면 농학 이론의 탐구와 기술의 개발 보급뿐만 아니라, 민족 문화를 계승 발달시키고, 선진국의 새로운 문화와 학문을 받아들여 후진성을 탈피하며, 나라의 중추적 인물과 창조자를 낳게 하고, 나아가 국운을 개척하는 소망과 사명까지 대학에 기대되었던 시기이었다. 이에 전 도민의 성원과 여망을 당시 충북도지사가 받아들여 ‘도립대학 설립기성회’를 결성한 것이 1949년이였다.

1950년 5월 1일 문교부로부터 초급농과대학의 설립이 가인가 되었으나 개학을 앞두고 6·25사변의 발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설립기성회를 중심으로 한 노력으로 2년제 청주초급농과대학(농학과 160명, 축산학과 80명)의 설립인가를 받아 1951년 9월 27일 개교하게 되었다.

개교 당시에는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산1번지에 있는 청주농업고등학교와 교사 등 시설을 같이 사용하였다. 당시 충북도의 재정으로는 대학의 건설에 어려움이 많아 시읍 지사를 회장으로 하는 ‘대학설



후원회

립기성회’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 세대 당 봄에 보리쌀 한 되와 가을에 쌀 한 되씩 내게 하였는데 도민의 열성과 협조로 상당한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그 기금은 그 후 제2본관(현 63동)의 건축비 등으로 쓰여졌다. 우리 축산학과는 이렇게 전 도민의 열과 성으로 설립하여 개교하게 된 것이다.

개교 당시 교수로는 서병훈 교수, 이재근 교수(후에 고려대로 전근) 등 2명이었으며, 52년에 조지훈 교수, 53년에 오선균 교수, 55년에 김상열 교수, 56년에 배대식 교수 등이 충원되었다. 그 외에 축산학과 봉직하시다가 퇴임하신 교수들은 김군식 교수, 김학운 교수, 배신석 교수, 김법회 교수, 김창기 교수 등 이시고, 이택원 교수는 총장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였다. 김종욱 교수, 김내수 교수, 정정수 교수와 송만강 교수는 퇴직 후 명예교수로 계신다. 현재 충북대학교에 전임으로 재직중인 교수는 조성구 교수, 최양일 교수, 김남형 교수, 김관석 교수, 최향순 교수, 조진호 교수 그리고 최성호 교수 등이다.

이 고장 학문의 중심이며 조국 건설의 사명을 띠고 출발한 이 대학은 1953년 3월에 농학과 9명과 축산학과 7명 포함 16명의 청주초급농과대학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고, 이 때 농학과 51명과 축산학과 46명은 청주농과대학(4년제)의 3학년에, 제1학년은 전원 2학년에 편입되었다. 1955년 3월 97명의 4년제 청주농과대학에서의 첫 졸업생 46명을 배출한 이후 2007년 9월 현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중부 지역 최대의 축산학 요람이 된 것이다.

수업 및 실험 · 실습



대학원과정은 1970년 2월에 8명의 정원을 얻어 석사과정이 설치되었다. 1973년 12월에 정원 2명의 박사과정이 신설되어 1974년 3월부터 박사과정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고 1983년 2월 첫 박사학위수여자(이택원)가 배출되었다.

충북대학교의 부속목장은 청주시 복대동의 독립종축장을 대학에서 인수하여 부속 목장으로 사용하였으나, 교내로 모든 학교 시설을 모두 옮긴다는 이유로 부속 목장은 현재 사범대 자리로 이전 하였다가(1968년), 종합대학의 부지 관계로 당시에는 한적하고 격리되어 있던 현 실내 실험축사 자리로 옮겼다가(1983년) 학교가 팽창하며 다시 교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어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하여 충남 연기군에 부지를 마련하였으나 전국적으로 휘몰아쳐 국가 대계를 그르치는 남비현상으로 인한 민원을 이유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현재 행정제관에 계류 중이다. 부속 목장은 부속 동물 사육장으로 개명하였다가 2006년부터 동물자원개발센터로 이름을 바꾸었다.

농위국본(農爲國本)이 진리로 존중되던 시대에 우리 대학은 개교하였다. 그 후 오십 년이 지나면서 사회도 경제도 많이 변화되었다. 조국의 독립과 전쟁을 거치고 빈곤과 기아의 시대를 지나 1970년대 고도성장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촌 인력은 도시와 공장으로 이동되었다. 녹색혁명의 달성으로 기아에 대한 고통과 위기감은 줄어들었다. 경제 논리가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이차, 삼차 산업에 비하여 생산성이 비교열세에 놓인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그 발전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는 지구촌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변화해 가며 농산물 수입의 개방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제 우리의 농업은 다시 국제경쟁력 열세의 시련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충북대학교 축산학과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때로는 적응하며 때로는 극복하며 변화하여 왔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변화에 따른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야 할 숙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



서 축산학과는 어느 때보다 그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는 때이기도 하다. 개교 당시는 유축 농업이라 하여 경종에 부속된 축산이었지만 이제는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이 되었으며 재순환 농업 내지는 지속 농업의 가장 중요한 축을 책임져야 할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가이기주의가 더욱 심화되는 현실에서 농산물 자급률이 25% 이하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농과대학과 축산학과는 책임져야 한다. 인구 증가, 자원의 고갈, 자연환경의 파괴 등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자연 및 사회 환경을 보전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책임도 축산학과와 앞날에 있다. 축산학과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현명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축산학과

주 소 :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전 화 : 043-261-2544

팩 스 : 043-273-2240

홈페이지 : 충북대학교 / www.chungbuk.ac.kr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 <https://animalscience.chungbuk.ac.kr/>

정리 : 최성호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

1977년 농림부의 배합사료제조 시설근대화 수립 이후 사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배합사료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주도의 전문 사료기술연구기관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그 후 1982년 협회 총회에서 사료기술경영연구소(가칭) 설치 3개년 계획이 승인되어 준비기간을 거쳐 1985년 5월 1일 최소한의 연구인원(5명)으로 기본 분석 및 연구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사료기술연구소가 발족되었다.

사료기술연구소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정부 위탁업무인 수입사료 검정업무, 사료공장 HACCP교육, 회원사를 비롯한 사료제조 및 수입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대행과 성분분석 지원업무, 국내외 비교분석, 회원사 품질관리 지원 업무, 품질 및 안전성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대 정부 업무, 연구사업 등이다.

연구소 발족 이후 회원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 수행한 업무는 회원사 품질관리 실험실요원의 분석실무교육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회원사 자체 품질관리 능력 배양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1986년부터 실시한 분석실무교육은 월 2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행하여 총 550여 명 실무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1995년 이후에는 비정기 교육으로 전환하여 회원사 요청시 수시로 분석실무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사료기술연구소는 검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모토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987년부터 미국사료검사관협회(AAFCO)의 비교분석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자체 평가를 하고 있으며, 순위평가를 할 때에는 180여 개 참여 기관 중 상위 10위 이내의 성적을 7회 기록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지금은 순위평가를 하지 않음), 그 외 회원사간 비교분석, 국제검정사간 ring test 주관 등 상호 분석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배합사료원료의 수입의존도가 95% 이상 되는 상황에서 간혹 회원사가 수입하는 원료 중 공급자와 구매자간 품질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회 구매규정에는 사료기술연구소의 분석결과가 최종 판단기준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한 예로 1998년 과열처리(over cooking)된 인도산 대두박이 문제가 되어 공급자와 구매자간 상사중재원까지 가는 수십억 원대의 소송 건이 있었으나 연구소의 과열처리 입증 분석결과(KOH단백질 용해도)와 기술자료 제공으로 회원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08년 중국발 세계적인 멜라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료기술연구소에서는 그 전부터 멜라민 분석을 진행하여 사전에 문제가 되는 원료를 screening 하는 선제적인 검정시스템으로 국내 사료업계 및 축산업계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 사례도 보이지 않는 기여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수입원료의 정확한 사료적 가치 평가와 안전성 관련 물질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사료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사료의 안전성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정부의 사료안전성 강화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제도 도입 추진으로 산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료기술



연구소는 학회와 공동으로 2차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1999년, 2002년)하여 대 정부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였으며, 그 외 돼지 질병(4P) 대책 T/F Team 활동, 사료첨가제 관련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광우병 관련 제도 신설, 사료공정 재개정 등 주요한 이슈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사료공장 HACCP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당 연구소가 농림부로부터 “사료공장 HACCP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 지금까지 770여 명이 과정을 이수하여 사료공장 HACCP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였다.

연구소가 참여하거나 추진한 주요 연구사업은 “옥수수품질평가 한미옥수수 공동project(2010년, 2013년)” 수행과 농진청 연구과제로서 “사료공정 과정 및 농가 급이시설에 대한 중점관리 기술 개발연구(2000~2003년)”, “한국표준사료성분표 분석자료 보완연구(2013~2015년)”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료기술연구소의 공로가 인정되어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 매년 우리나라 축산·사료산업에 기여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축산·사료 연구기술 단체부문 기술대상을 2008년도에 수상한 바 있으며, 현 사료기술연구소 문홍식 소장은 농림부장관표창(2001)을 비롯하여 축산과학원으로부터 축산기술발전공로상(2012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진흥사업발전공로상(2014년) 등을 수상하였다.

앞으로도 사료기술연구소는 공신력과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배합사료 산업과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정리 : 문홍식(사료기술연구소장)

탐방보도

계성양계영농조합법인 (鷄成養鷄營農組合法人)

(대표 : 엄현태)

계성양계영농조합법인(이하 계성양계, 대표 엄현태)은 1991년 약 12천 수 규모의 작은 육계농장을 시작으로 양계업에 발을 내딛는다.

육계업은 당시만 하더라도 큰 도계장이나 대형 유통업체가 많지 않고, 시골시장에서는 산 닭을 직접 잡아 소비자에게 제공되던 시절이었다. 육계업은 양계업과 달리 사육한 닭의 출하시기가 매우 중요했다. 이른 바 닭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시기인 연말연시, 행사철, 삼복 등의 수요에 맞춰 출하해야 시세를 잘 받을 수 있었다.

한번은 3천 수를 출하 할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인근 지역에서도 출하 할 닭이 많아 시세가 폭락한 상태였다. 적자를 보더라도 출하를 해야 할 상황이었는 데 출하를 약속한 전 날 폭설이 내리기 시작해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강원 영동과 영서 지역을 넘나들 수 없게 되었고,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물량 확보에 이상이 걸린 유통업체들은 영동지방에 유일하게 출하기준을 맞출 수 있는 닭을 가진 우리 농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갑자기 시세가 폭등하게 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일을 지속할 수는 없기에 비교적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사업을 위해 양계업으로 전환을 시도하였고, 1999년 법인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관계 회사로 계란가공품을 생산하는 (주)과머스,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농업회사법인 (주)계성, 그리고, 유기질비료의 생산, 판매는 계성양계에서 전담하고 있다.



농장 전경



GPC, 알가공공장

산란계로 전업하여 계란 생산만 잘 하면 팔릴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계란유통은 의외로 쉽지 않아,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멀어 시세 및 시장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일부 유통상인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상품을 매입 후 ‘노계 알아서 파손이 많다’, ‘신선하지 않아 클레임이 계속 발생한다.’ 등의 갖은 이유를 대며 대금지불금의 일부를 임의로 깎아서 지불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물론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20여 년 가까이 지금도 거래를 유지하는 유통업체가 거의 대다수이지만, 그 때의 좋지 않은 기억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유통업에 진출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고, 2002년부터 국내 최대 할인점 ‘이마트’ 납품을 시작으로 ‘파리마켓’로 잘 알려진 SPC그룹에 계란을 공급하며, 2006년에는 최신 GPC (Grade Packing Center)를 신축하여 현재 연간 1억9천만 개의 계란 약 35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제품(이마트판매)



GP센터 포장라인

양계업 뿐만 아니라 여타의 축산업 또한 분뇨처리에 대한 고민은 갖고 있을 것이다. 계성양계는 양계업 진출과 동시에 퇴비사업에 투자해 가축 분뇨 처리가 아닌 유기질비료 제품 생산 및 판매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을 하고 있다.

가축분퇴비, 혼합유기질비료, 혼합유박비료 3종을 주력으로 연간 60~70여만 포를 생산, 강원도 최대 고냉 지체소 재배단지 등 관내 인근지역에 전량 판매하고 있다. 특히 퇴비의 고품질화를 위해 펠렛화설비를 갖추



펠렛화비료공장



비료자동포장라인

고 펠렛화된 유기질비료를 판매하여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계란은 국민의 기초식품이자 유통시장에서는 저 관여 상품으로 분류된다. 소비자가 브랜드에 민감하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쉽게 구매한다는 것인데 이런 상품의 특징은 마진이 적다.

양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계란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쉽게 계란을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용도에 필요한 계란가공품이 잘 발전해야 한다.

당사는 2003년 알가열성형전문회사를 설립하고 고객의 다양한 NEEDS에 부합하고자 다양한 계란가공품을 만들어 시장에 선 보이기 시작했으며, 13년이 지난 지금은 편의점의 성장과 함께 다양해진 도시락에 계란말이, 계란후라이와 같은 알가열성형제품을 공급하며, 외식프랜차이즈기업과 공동으로 메뉴 개발에 참여하여 계란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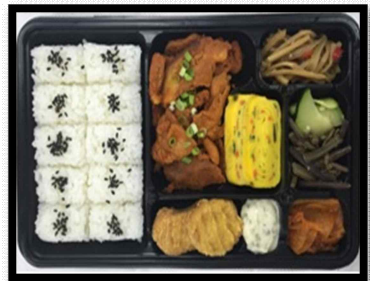
*** 시중에 판매되는 당사공급 제품**



추억의도시락GS25



본도시락 (계란말이)



바삭고추장불고기GS25

동사의 발전과 양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를 바라봐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계란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식생활에 꼭 맞는 다양한 계란가공품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동업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계성양계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정리: 권익섭 (조합 전무)